

## 大學教育의 質的 向上



嶺南大 總長 柳 駿

### I

人間文化의 現象의 存在意味는 眞空 속에서 생성· 존재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맥락을 이어 받아 보다 나은 發展의 未來를 추구함으로써 그 存在價値를 부여받는 데 있다 하겠다. 이러한 전제 아래 大學文化의 진정한 存在價値는 社會文化 속에 내재하는 또는 선도하는 존재로서의 大學文化라는 自己正體性에 입각하여 과거에 축적된 지식을 보다 高度의 學問的 價値로 승화시키는 데 있으며,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간에 生産的인 보탬을 더하는 學問의 質 향상에 있다 하겠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遊離된 塔 속에서 孤高聲을 發하는 것이 아니라 實社會의 현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조국과 민족에 奉仕할 責무를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物質 내지 經濟的 社會의 競爭力 또는 質의 水準에 있어서도 기업가 혹은 현실사회에 참여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學問하는 사람 스스로가 根源的 責任을 지겠다는 자세를 갖는 데 있다 하겠다.

學問의 質的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精神的 尊敬과 經濟的 自立의 바탕 위에서 학문추구의 자유를 가져야 하겠다. 여기에서 添言되는 학문의 자유란 과거나 현재의 知識 내지 社會現象에 대하여 批判的 또는 排他的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 연구·논의·발표의 자유이지 知識適用의 완전한 自由現場이 아닐 것이다.

우리 민족의 傳統的인 교육열과 첨단과학·정보화 사회를 指向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르려는 複合的 教育열기에 의하여 昨今의 우리 대학들은 國·私立을 막론하고 그 양적 팽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대학들이 普遍化된 知識의 大量傳達機關으로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무능력한 고학력자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學問의 質的 向上에 보다 신중한 대책과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여기서는 學問의 質에 대한 比較的 적도와 그 向上의 目標를 어디에 두어야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照明함으로써 大學教育 발전에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 II

과거 우리의 先代들은 지난 5천년 동안 수 없이 많은 外侮와 역경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민족 특유의 文化를 계승·발전시켰다. 日帝에 빼앗겼던 祖國을 되찾고, 6·25의 慘禍를 이겨내었으며, '60년대 이후 빈약한 自然資源과 한정된 국토면적의 악조건을 克服하여 近代化·産業化를 추진한 결과 先進經濟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環境與件은 中共의 탄이베운로기 政策 및 環太平洋時代의 國際開放社會에 영향을 받아 人的 資源 中心産業의 한계성을 나타내었고, 自然資源中心의 富의 창조로서도 세계 속의 韓國으로 發展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露呈시키고 있다.

이러한 內外的 상황들이 오늘의 우리 대학들에게 情報化時代 내지는 고도의 첨단과학사회를 지향한 跳躍의 견인차 역할을 渴求하고 또한 고도화된 학문이 사회 속에 실행적으로 連繫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민족이 가진 悠久한 역사성 위에 창출된 우리 고유문화의 優秀性を 바탕으로 이제는 生産教育의 결실을 추구할 단계다. 지식을 단지 지식의 상태로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實行에 연계시키며,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구체적인 결실을 지향하며 國際開放시스템 속에서 내일의 現象으로 도출될 社會文化를 高揚시키고 國際競爭力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大學教育의 質的 向上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III

歷史의 脈絡 속에 존재하는 組織體로서의 大學의 진정한 사명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면 現實性의 사명과 未來性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 현실성의 사명이란 前代의 傳統을 단면히 이어 받아 새로운 지식을 첨가함으로써 現代社會의 競爭力을 유지시키며 文化發展의 原動力 내지는 求心力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성의 사명이란 精神文化의 흐름을 주도하여 物質的 便益과 精神環境의 乖離(Trade-off)를 방지하며 汎世界的 경쟁환경에 대처할 對備의 장치로서의 사명이라 하겠다. 이러한 大學使命의 중요성에 비추어 불 때 내면적 우수성 확보를 위한 學問의 質的 向上의 강조는 필수적 요소라 하겠다.

엘빈·토플러가 말한 제 3의 조류, 情報化時代의 적응과 민족 특유의 高學歷 선호사상에 복합적으로 영향받고 있는 昨今の 우리 대학들은 급격한 量的 팽창에 逆比例하여 그 학문적 수준은 普遍化된 지식의 대량전달기관으로 변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강조되는 大學教育의 방향은 實行力이 결핍된 인테리형 지식층의 산출과 취업 내지는 출세도구적 무능력한 高學歷者의 배출을 우려해야 될 것이다. 본인 스스로의 實行力은 결핍되어 있지만 第3者의 管理를 통해서 實際生活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知識層은 우리나라 産業環境與件에 비추어 불 때 이미 飽和狀態에 왔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階層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질 때 우리 사회는 精神的 漂流期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회 또는 조직체가 維持·存續·成長하기 위해서는 外部環境 변화의 여건을 보다 合理的인 방향으로 수용하여 內部環境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組織存續의 목적에 부합한 合理性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를 폐쇄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퇴보 내지 存續 의미의 상실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客觀的 評價에 자신 없는 개인 또는 조직체일수록 外部環境에 대하여 批判的이고 非融和的인 반응을 보이며, 安定社會에 대한 파괴적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臨床心理學에서도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이 일으키고 있는 大學騷擾의 일부 양상이 自己露出에 대한 불안감과 自負心の 결여로 現象的 社會體制를 무조건 부정함으로써 대학발전의 저해를 통한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데서, 그리고 開放社會 속에서의 自己認識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덮어두려 하며 他人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깊이 통찰하여 대학인들은 大學教育의 질적 향상의 필요성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對策樹立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大學教育의 質的 向上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우리 문화의 傳統的 특색 위에서 설정되어야 하겠지만 또한 세계 속에서 相對的 評價를 받았을 때 그 優秀性 내지 效率의 價値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學問의 質에 대한 평가가 比較的인 이야기라는 것은 閉鎖性 속에서 스스로에게 부여한 價値水準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開放的 興件 속에서 비교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 가운데서 優秀性을 인정받으며 그 生産性和 效率性이 세계 어디서나 동시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문화의 傳統的 特色 위에서 世界文化를 生産的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東西文化를 수입·흡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우리 고유문화의 특색을 高揚시키고 主體的 民族觀의 고취로 자기 존재를 自愛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어느 학자의 “學問에는 국경이 없지만 學者에게는 祖國이 있다”라는 말이 이러한 내용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반대로 자기의 獨創性和 主觀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폐쇄적 자세로 硬化化되어 世界文化 속에 융화되지 못하고 쇠퇴와 사멸의 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 민족 特有的 傳統性 위에 世界文化를 포용함으로써 보다 有效한 社會文化를 새로이 創出하는 것이 大學의 使命의 본질이며, 社會文化를 先導하는 大學文化로서의 기능을 완수한다고 할 것이다.

#### IV

大學教育의 內面的 過程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人間教育과 生産教育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人間教育이란 全人의 人格完成을 위한 과정으로서 원만한 社會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資質을 키워 주며, 民族傳統性을 유지·함양·전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비해 生産教育이란 인간교육의 基本的 素養을 바탕으로 競爭社會 내지 어떤 조직체에서 能力人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能力人 산출을 위한 교육이란 내 이웃과 우리 국토 내에서 인정받는 능력인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동시적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서, 人間敎育과 生産敎育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世界史를 주도하여 갈 棟梁輩出의 책무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解放 이후 지난 40여 년간 祖國에 공헌할 人材 양성을 위하여 우리 대학들이 기여한 功績은 매우 컸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內外環境與件이 頭腦時代를 선도할 優秀能力人의 배출을 기대하고 있음을 볼 때, 그 內面的 表現으로서 大學의 敎育을 담당하고 있는 大學人의 質的 向上 또한 필연의 과제라 하겠다.

大學人의 質적 향상의 目標을 外面的으로는 세계 속에서 동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大學人의 質 評價는 본인 스스로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嚴格을 目標로 敎育人으로서의 資質涵養을 위해 부단히 自己鬭爭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발전을 향한 自己內部的 鬭爭의 結實이 곧 학문의 質적 향상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고도로 세분화된 학문을 추구하는 大學人의 質 評價는 본인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방법밖에 최선의 길이 없다 하겠으며, 外形的 방법이 있다면 대학의 經營者나 管理者가 부단히 공부하지 않는 대학인이 스스로 불편을 느끼게 하는 大學社會의 霧囿氣를 조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학문의 質적 향상 추구를 위한 부단한 動機賦與가 대학사회내에 充溢할 때 대학의 부차적인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되리라 본다.

이제 세계는 한 마당 안으로 성큼 좁혀진 것 같다. 이러한 때에 우리 대학들은 제 3의 조류에 묻혀 自己喪失의 늪 속으로 묻혀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특색 속으로 世界文化를 가슴 가득히 抱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가르치는 자의 義務인 부단한 배움의 추구를 저버리지 않을 때 大學의 質은 보다 높이 향상될 것이다. \*